



## 관내 동향

### □ 사천시, 국회의원·시도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 사천시는 8월 23일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을 공유하고, 국·도비 지원 사업을 건의하기 위해 국회의원, 시·도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간담회는 박동식 사천시장이 주재하였고, 하영제 국회의원, 윤형근 사천시의회 의장, 김현철 도의원, 임철규 도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시는 항공우주청 사천 설치,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지정,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사천시의 당면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 □ 사천시, '항공우주포럼 및 수출상담회' 추진위 개최

- 사천시는 9월 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상훈 부시장과 에어로마트사천 추진위원회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우주포럼 및 수출상담회' 추진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 추진위는 오는 10월 18일부터 19일 까지 양일간 KB인재니움 사천연수원에서 '2022 항공우주포럼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행사 세부추진 계획과 예산 수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 항공우주포럼 및 수출상담회 행사는 국내 항공우주기업과 해외바이어를 매칭하여 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마케팅 행사로 포럼과 기업간 1:1 수출상담으로 진행된다.
- 특히, 올해는 항공우주청 사천 설치 확정을 기념하여, 우주산업과 4차 산업에 대한 발표 세션도 마련할 예정이다.

## □ 사천 항공우주 미니클러스터, 정기총회 개최

- ‘사천 항공우주 미니 클러스터’가 8월 31일 실안 아르떼리조트에서 회원 기업과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정기총회를 갖고 지역 항공산업체 협업 증진과 발전 방향 등을 모색했다.
- 지역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입주 기업체의 산학연 협력 활성화, 마케팅과 판로개척 등에 대한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경근 미니클러스터 회장은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미니클러스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 박동식 사천시장은 “현재 사천시는 명실상부한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서 위상 정립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와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항공우주 미니클러스터의 적극적인 협조와 활동을 당부한다”고 답했다.

## □ KAI, 강구영 신임 사장 취임

- 한국항공우주산업(주)(KAI) 강구영 신임 사장이 지난 9월 6일 공식 취임했다. 별도의 취임 행사 없이 바로 고정익동, 헬기동 등을 방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밤새워 근무하는 KAI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현장 중심의 경영을 예고했다.
- 강 사장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고부가가치 기업으로 전환해 미래에도 기술 주도권을 갖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고객과 주주들에게 사랑받는 회사를 만들겠다”며 힘찬 출발을 약속했다.
- 강 사장은 세계 최고의 영국 왕립시험비행학교에서 전투기, 여객기, 헬기, 우주선 등 30여 종을 비행하며 최고 전문과정을 이수했다. 또 국내 1세대 시험비행 조종사로서 KT-1, T-50 개발에 참여해 국가 항공산업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군 전역 후 영남대학교 석좌교수를 역임하면서 후학 양성은 물론 사천시 항공우주산업 정책관을 수행하기도 했다.

## □ **대신항공, 미국 벨 텍스트론과 동체 구조물 공급 협약 체결**

- 사천시 소재 항공부품 제조기업인 (주)대신항공은 8월 18일 미국 글로벌 헬리콥터 제조사인 '벨 텍스트론'과 Bell412 모델 주요 동체 구조물 공급에 관한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이날 협약식에는 이경근 대신항공 대표이사, 존 리히텐펠드 벨 텍스트론 아시아 오피스 프로그램 매니저 등이 참석했다.
- 대신항공은 이번 공급 협약으로 향후 수년 간 Bell社에 주요 동체 구조물을 독점 공급하게 된다.
- 대신항공은 그동안 KT-1 훈련기 주날개 등 항공기 기체 구조물 제작 공급으로 뛰어난 기술력과 안정적인 품질관리 체계, 우수한 생산관리 능력을 인정 받은 바 있다.

## □ **아스트, 이스라엘 IAI와 510억원대 부품 공급계약 체결**

- 항공기 정밀구조물 제작 업체인 아스트가 이스라엘 국영 방산업체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과 약 510억원 규모의 화물기 개조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 IAI는 올해 초 캐나다 화물전용 항공사인 'Cargojet'으로부터 B777-300ER 여객기 개조사업을 수주받았는데, 아스트는 이번 계약으로 IAI와 함께 해당 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계약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으로 계약 금액은 약 3,900백만달러로 한화 약 510억원 규모다.
- 아스트 관계자는 비행기를 정비·수리·조립하는 MRO사업을 신규 성장 동력으로 보고, 특히 P2F(Passenger To Freighter) 시장에서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 도내 동향

### □ 박완수 경남도지사, 윤대통령에 항공우주청 조기 설립 건의

-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8월 31일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을 찾았다. 부산신항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원희룡 국토부장관, 이청양 산업부장관, 조승환 해수부장관을 비롯해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박완수 도지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항공우주 산업의 산업·안보·R&D 정책지원 등을 모두 포괄하는 항공우주청을 경남 사천에 조속히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 윤대통령은 항공우주청을 미국의 NASA처럼 만들겠다고 밝혔으며 일반 공무원 조직이 아닌 전문가 조직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대통령실 주재로 최근 유관 부처 관계자들이 항공우주청 설립을 위한 회의를 가졌고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 경남도, 방위산업 육성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경남도는 방산업체, 대학, 연국기관 등 방위산업 전문가들과 함께 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9월 4일 개최했다.
- 이번 회의에는 경남도 류명현 산업통상국장과 한국항공전략연구원, 한국 국방연구원,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체계기업, 협력업체 등 전문가와 경남 테크노파크 실무팀을 포함하여 20여명이 참석했다.
- 8월 초 열린 정책간담회가 방위산업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대응전략 논의의 장이었다면,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는 대응전략을 보다 체계화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중장기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자리였다.
- 경남 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 및 이행과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는 우선순위를 정한 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상남도의 방위산업 육성 전략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 국내 동향

### □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확정 및 본격 추진

- 방위사업청이 정부대전청사 부지에 신청사를 지어 이전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고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 8월 31일 국토부는 방위사업청을 대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어, 9월 15일 방위사업청·대전시·대전 서구청은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대전시와 서구청은 방위사업청의 신속한 이전을 위한 신청사 건립, 1차 이전 등의 업무 협조와 이주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방위사업청은 2023년 상반기에 일부 부서가 대전시 서구로 이전하고, 정부대전청사 유희부지에 청사를 신축하여, 2027년까지 전체 부서가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다.
- 2006년에 개청된 방위사업청은 3본부, 107과 조직에 1,6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로 확정되어 대전 이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 국내 방산업체 태국 및 폴란드 방산전시회 참가

- 폴란드발 무기체계 수출 계약으로 잭 팻을 터트린 국내 방산업계가 태국, 폴란드 방산전시회 연이은 참가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9월 1일부터 4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인 D&S 2022(Defence & Security 2022)에서 LIG넥스원을 비롯해 국내 16개 업체가 참가해 K-방산의 기술 역량을 알렸다. D&S 2022는 올해 10회를 맞는 육해공 종합 국제 방산전시회로 전 세계 고위급 국방관계자와 45국 500여 개 방산업체가 참여했다.
- 또한 9월 6일부터 9일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MSPO 국제 방산 전시회에도 참가했다. MSPO는 폴란드 국방부와 국영 방산그룹인 PGZ가 공식 후원하는 행사로 199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특히 KAI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FA-50 경공격기, KF-21 보라매 전투기와 소형무장헬기(LAH)를 전시했다.

## □ **LIG넥스원, 연구개발 국제기준 최고 등급 6회 연속 인증**

- LIG넥스원은 연구개발 역량평가의 국제기준인 CMMI에서 최고 단계인 '레벨 5' 재인증을 받았다.
- CMMI는 카네기멜론 대학의 소프트웨어 공학연구소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개발 조직 성숙도 평가 프로그램으로, 레벨 5는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과 혁신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한 조직에게 주어진다. 이번 심사에서 LIG넥스원은 CMMI 2.0버전(공급자 관리 포함)의 196개 프랙티스의 요구조건을 충족해 최고 등급을 받았다.
- 특히 변화하는 무기체계 개발환경과 획득전략에 따라 연구개발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무기체계의 성능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등 다수의 영역 전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2007년 국내 방산업계 최초로 CMMI 레벨 5를 획득한 바 있는 LIG넥스원은 보잉·록히드마틴 등 글로벌 방산기업과 동일한 레벨의 R&D 역량을 인정받게 된 만큼, 현재 추진 중인 국내외 사업과 수출은 물론 4차 산업 혁명과 연계한 미래 국방기술 개발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해외 동향**

## □ **스페이스X, 미 나사와 우주 민간 수송 계약 체결**

-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미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인 운송 임무를 14억 달러(약 1조8700억 원)에 계약체결했다.
- 스페이스X는 NASA의 우주 비행사와 화물을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보내고 우주비행사를 지구로 귀환시키는 상업 우주인 운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그간 NASA의 우주인 운송 프로그램을 4차례 시행한 바 있다.
- 2011년 NASA는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 폭발사고(2003년)를 계기로 운용 비용 및 기술적 문제를 들어 자체 우주왕복선(Space Shuttle) 운용을 종료했고 이후 소유즈 우주선에 인력 수송을 맡기면서 러시아에 거액을 지불해왔다. 그러나 미국-러시아 간 여러 정치적 긴장 관계속에 나사는 미국 민간 기업에 우주인 운송을 의뢰했다.

- 스페이스X의 크루드래곤과 보잉의 스타라이너(Starliner)가 계약을 위해 경쟁해 왔다. 현재까지 스페이스X는 14건의 임무를 수행했고 보잉은 6개의 임무를 수행했다. 스타라이너는 아직 우주비행사를 함께 태우지 않았다.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지난 2020년 9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땅에서 화물이 아닌 사람이 탄 우주선을 쏘아 올려 우주정거장을 왕복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에는 블루오리진을 제치고 나사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달 착륙선 개발업체로 낙점된 바 있다.

## □ 스위스, 미 스텔스 전투기 구매 '국민투표' 않기로

- 미국의 5세대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 F-35 구매를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던 스위스 정부가 이를 뒤집고 지난해 6월 정한 61억 달러 (약 8조1700억) 상당의 미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의 F-35 구입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 중립국 위치 훼손과 높은 비용 문제 등으로 이 문제를 놓고 국민투표를 시행할 전망이었지만 스위스 정부는 F-35 공급 일정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단 이유로 국민투표를 시행하지 않겠다 방침을 발표했다.
- 한편 유럽의 내륙 국가인 스위스는 역사적으로 200년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중립국'으로 꼽힌다. 현재 스위스 공군은 현재 미국 F/A-18 호넷 전투기가 전력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 전투기들의 2030년 퇴역을 앞두고 스위스는 보잉의 슈퍼호넷, 다쏘의 라팔, 에어버스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약 61억 달러(약 8조1700억원) 상당의 록히드마틴 F-35 구매 결정을 내렸다.

작성일	2022. 9. 15.(목)	보고일	2022. 9. 19.(월)
부서명	항공경제국 우주항공과	담당자	최고봉(055-831-3470)